피붙이vs 영붙이

(막3:31~35)

31. ○그 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32.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33.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34.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35.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피붙이 vs 영붙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피붙이라는 말을 우리가 살붙이라고도 하지요. 혈연상, 그러니까 피와 살로 맺어진 생물학적 인연관계에서 가까운 사람들을 우리가 피붙이다, 살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붙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피붙이, 살붙이라는 말의 구성에 준해서 제가 그냥 만들어 본 말입니다, 영붙이!
피붙이의식이 온전히 끝이 나야지 참 기독교신앙으로 성립될 수가 있고, '기독교신앙에서는 살붙이, 피붙이의식 대신에 영붙이 의식으로 대체 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같이 나누려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좀 예수님이 이러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미쳤다라고 판단되어지는 상황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서기관들은 그에서 더 나아가서 미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지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강하게 사회적인 비난을 받게 될 때에 그걸 살짝 가리는 것을 봅니다.
통일교 문선명 씨가 피가름의 원리를 내세우면서 주장했다가, 그게 공격의 주 포인트가 되자 살짝 가립니다.
그래서 원리강론에 보면 그런 것들이 다 가려져 있고 미화돼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미쳤다는 오해를 받고 계시는 판인데, 밖에서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과 누이들이 찾고 있다는 사람의 말을 듣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마리아와 야고보 그러한 혈육상의 형제, 같은 배에서 태어난 그 형제들이 형제자매가 아니다, 나를 뱃속에 잉태했다가 난 그 마리아가 내 어머니가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맞아 우리가 미쳤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미쳤구먼! 아니 나사렛에서 같이 살고 있는 이웃 주민인 우리가 그 마리아가 어머니인 걸 알고 있는데 어머니가 아니라 그런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아니 마리아가 어머니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불가능한가? 마리아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자매들을 내 동생들이라고 한다 해도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일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말이냐?'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게 생겼습니까?

왜 말씀을 이렇게 과격하게 하시느냐 이겁니다.
왜? 왜 이렇게 진짜 정신 나가신 분처럼 말씀 하시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정신 나가신 말씀을 하신다고 오해 되어질 정도로 강도 높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신앙인이 되려면 피붙이의식이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원래 요구하는 것이 피붙이의식을 영붙이의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깁니다.

마음속에 피라는 의식이 있어요, 내 피를 나눈 혈육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런 액체의식이 있어요, 액체의식.
피붙이 액체의식, 피가 액체잖아요.
그런데 영붙이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체의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영! 프뉴마, 바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람!
피라는 액체의식이 사라지고, 영이라는 기체의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성립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피붙이의식이 끝나게 됩니까?
피붙이의식이 끝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어느 부모님의 자식이고 그리고 내 밑에 또 자녀들이 있고, 이러한 가족관계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혈연의식이 있어요.
혈연관계의식이 있는 채로 하나님께 나올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죄가 사라져야 될 뿐만 아니라, 이 혈연관계의식, 피붙이의식 자체가 사라져 버려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좀 내막을 살펴봐요, 언뜻 듣기에는 계속 정신 나간 소리 같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소리 같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과격한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라는 얘기에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내가 지금 장사를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이 장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29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음으로써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만 되는 필수과목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살면서 저 사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 자식을 유학을 조기유학을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택과목입니다, 나만의 문제!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 필수과목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왜 피붙이의식이 끝이 나느냐?
계속 말씀 드렸어요, 그렇죠?

마가복음 안에서만도 반복해서 지금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천국을 가져 오셨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와 함께 있어야 된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처럼 나와 함께해야 된다, 이 함께함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함께 한다고요?
주님의 십자가까지 함께 해야 됩니다, 가롯 유다는 거기서 실패한 것이에요.
함께하게 하기 위해 열둘을 두셨는데 그 중에 가룟유다는 예수를 팔았다, 함께하기 싫기 때문에.
왜? 십자가 예수님과 끝까지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십자가 위에까지 함께 한다는 것은, 내 심장을 예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린다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 예수님께 심장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함께하기 위해서 열둘을 세우셔서'라는 말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십자가의 예수님에게 내 심장을 드리게 되면, 이게 기독교의 믿음인데, 심장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 앞에서든지, 그렇게 드리게 될 경우에, 원심분리기의 기능이 나타난다고 그랬습니다.
원심력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던 세상이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때 피붙이의식이 함께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빨래에서 물기가 다 빠져 나가듯이, 마음에 들어온 피붙이의식, 이 액체의식, 마음을 축축하게 적시고 있는 이 피붙이의식 살붙이의식이 다~ 마음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게 안 빠져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몸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얻게 된 관계의식이 다~ 빠져나가지 않으면, 십자가에 올라간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올라갔다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 내 삶의 근거가 되고 있는 이 몸이 없으면 삶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의 삶은 없는 거예요.
그 몸 자체가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몸 때문에 생긴 모든 인연이 다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피붙이의식이 십자가에서 사라질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가족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걸 따라가 보는 겁니다.
이렇게 피붙이의식이, 살붙이의식이 다~ 사라져 버릴 때, 마음이 깨끗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거나 십계명을 어긴 것만 죄가 아니에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 말고는 담겨지지 말아야만 하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 세상에서 몸에 묶이면서, 마음이 몸에 묶이는 바람에, 피붙이 살붙이의식이 생겨 버렸어요.
그게 더러워진 겁니다.
그게 다~ 빠져 나가고 하얗게 되면 그때, 피붙이의식 대신에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으로 오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바람 같으신 프뉴마라고 하는 바람과 같은 단어를 쓰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므로 기체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이제. 기체의 피가!
그전에는 액체의 피에 대한 의식으로 가득 찼었는데 이제는 기체의 피가 흐르면서, 진정으로 하늘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됩니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대한민국 법제상으로는 호적파기가 불가능해요.
정말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혈연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적으로는 축복으로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복으로 인식되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호적이라는 게 없어지고,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게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의 예를 제가 읽어봤는데,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어보니까 지금 함께 살고있는 친어머니의 이름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엉뚱한 어머니가 올라가 있고, 알지도 못하는 형제들이 둘이 있습니다.
내막을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돌아 가셨는데, 아버지가 첫 번째 결혼한 부인과 살면서 아이를 둘을 낳고, 그리고 그 가족과 헤어졌는데, 그래서 지금 내 어머니와 결혼해서 나를 낳았는데, 전부인하고 법적으로 이혼을 신청하거나 법적으로 정리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만 올려놨는데 내 친어머니는 오간 데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호적관계가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중독자입니다.
형들은 한량이고 난봉꾼이고 맨 날 도박만하고 돌아다닙니다.
차라리 그런 가족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머니 없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서 나 혼자 살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엘리트로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자꾸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걸림돌이 됩니다.
이때 호적을 파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상담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상, 법제상으로는 방법이 없어요.
나 혼자 호적을 판다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음에서 완전히 호적을 파 낼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호적정리 하라는 거예요.
피붙이의식을 갖고 있어서는, 이미 기존에 이 몸을 중심으로 한 혈연관계의식을 주렁주렁 마음에 매달고서는 하나님께 나와 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내 심장을 드리게 되면, 반드시 마음속에서 피붙이의식이 다~ 사라져 버리고, 영붙이의식으로 대체 돼 버린다는 얘깁니다.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하는 영붙이의식으로 바뀌어 버린다는 얘기에요.
내 아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가서는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존의 혈연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붙이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존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자리로 어머니의 자리로 자식의 자리로 형제의 자리로 자매의 자리로 나를 내 보내시는 겁니다.
이전에는 자식을 보면서 피붙이의식을 갖고 그 자식과 관계 했습니다.
내 피붙이 내 살붙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피붙이의식이 다 빠져 나가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딸이라는 영붙이의식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로 나를 보

내십니다.
이제는 아이를 대하는 것이 피붙이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냄 받은 사명의식을 가지고 대하게 됩니다.

이 사명의식을 갖고 대할 때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 아이에게서 내게 채워져야 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이가 어떻게 되어서 기뻐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영붙이로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아버지로부터 내 마음의 행복과 충족은 다 이루어지고, 오직 그 아이를 위해서 피붙이의식이 아니라 사명의식을 가지고 다가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아이에게 말하고 그 아이에게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관계도 마찬가지에요, 남편과 아내관계도.
모든 사람관계가 다 이렇게 영붙이로서, 하나님의 영붙이로서 이 세상의 살붙이와 피붙이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붙이로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두 가지이지요.
필수과목의 뜻이 있고, 내가 영붙이가 되는 십자가 예수님에게 내 심장을 드림으로써 피붙이의식이 다~ 원심분리기에서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고, 영붙이의식으로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런 영붙이가 되었을 때에, 이 세상에 보내져서 순간순간 보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선택적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선택적 하나님의 뜻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알려 줄 수가 없어요.
나만이 알아요.
그럼 어떻게 알려지느냐?
온전하게 영붙이가 되면, 나에게만 적용되는, 나에게서만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뜻은 알려지게 됩니다, 믿으세요!

이걸 해야 되는 게 뜻입니까? 아닙니까? 자꾸 이렇게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직 온전하게 영붙이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붙이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내 인생을 위해서 뭘 해

야 되는데… 이 몸에 근거 되어진 이 세상의 삶을 위하는 이 피붙이의식 살붙이의식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자꾸 망할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좋습니까? 저게 좋습니까? 물어 보는데, 이런 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무엇을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없을 정도로 피붙이 살붙이의식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아예.
몸 때문에 만나게 되는 상황과 인연과 관계와 사람과 사건과 모~든 일을 다~ 마음에서 빼 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영붙이가 되고 나면, 그래서 하늘아버지로부터 행복과 기쁨이 충만해지면, 이 세상에 대해서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지면, 그때 비로소! 이 세상에서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들이 명확하게 주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50에 지천명할 필요 없어요.
30이라도 주님의 십자가에 내 심장을 드려서 피붙이의식이 다~ 빠져나가고 영붙이의식이 충만해지면, 30살에도 지천명할 수 있고, 20살에도 지천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올려놓지 못하면, 공자님도 올바른 지천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80이 됐어도, 그냥 당신 스스로가 자의적으로 이게 하늘이 내게 준 사명이라고 믿는 것뿐이지요.
피붙이의식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는 절대로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 가에 대해서 명확한 깨달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고 자매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자매요 형제다'
이 세상에서 피붙이와 살붙이의식이 다 사라진 자,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게을러서 자기 혼자 이기적으로 살기위해 자식이 귀찮아서! 이것이 아니라,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래서 혈연관계를 다 끊어내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 심장을 드렸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피붙이의식이 다~ 사라지게 될 때, 영붙이로서의 의식이 충만해지면, 이제 이게 첫 번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영붙이로서 온전한 모습이 갖추어지면, 두 번째 내 삶에만 적용되는 선택적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만 가르쳐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하늘 가족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붙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 애절하고 절실한 친근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친근감의 본질을 알아보면, 내 마음이 내 몸에 묶여 있기 때문임을 압니다.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피붙이의식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 생각이 그토록 절실하게 애절하게 친근감 있게 다가올 수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선택적 뜻을 위하여 또한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옵나이다.

아멘!